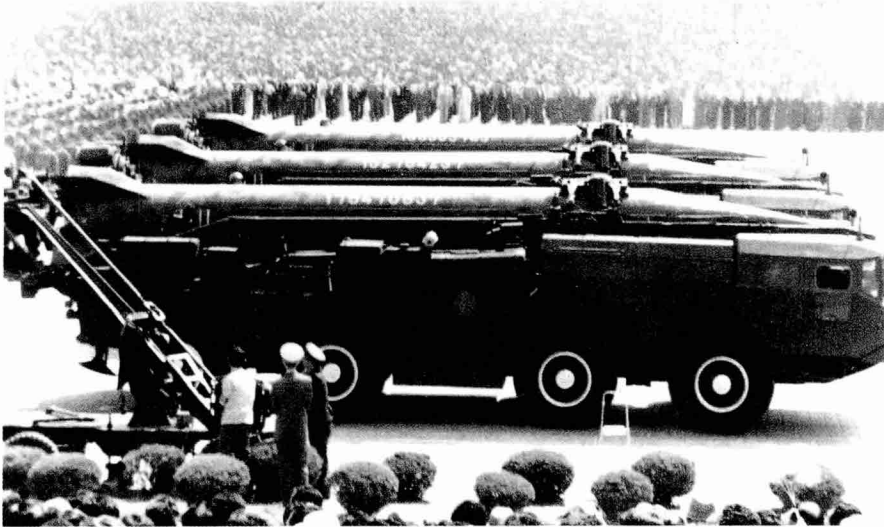


북한, 「노동1호」 내년 실전 배치 예정

- 국방 대학원 개최 「'94 국제 안보 학술 토론회」에서 발표



◀북한이 개발중인 사정거리 1천5백~2천km의 신형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1호가 오는 96년 실전배치되고 사정거리 1천~1천3백km의 노동1호는 금년 중 내년까지 실전배치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국제 안보 학술 토론회에서 발표되었다. (사진은 북한의 개량형 SCUD미사일)

국방 대학원은 9월 1일 오후 부설연구소 안보문제연구소 강당에서 「북한군의 특수무기 능력과 개발전망」이라는 주제로 국제안보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영국의 군사전문 월간지 「제인스 인텔리전스 리뷰」의 상담역으로 있는 조셉 버뮤데즈씨는 『북한군의 미사일 개발』, 영국 애버딘대학의 마이클 쉬한 교수는 『북한군의 化生戰 능력』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70년대 중반부터 미사일 개발에 관심을 갖고 소련제 스커드 B형 미사일 및 발사대 수직을 이집트에서 들여와 이를 분해해 설계의 핵심을 탐지하는 역설계 방법으로 개발을 추진했다.

사정거리 1천3백km의 노동1호는 스커드 B를 완전 재설계한 것으로 올해 말부터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며 90년대초부터 개발중인 대포동 1호 미사일은 96년이후,

2호는 2000년에 각각 실전배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은 2000년까지 노동1호에 핵탄두를 장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경가스 등 화학 작용제를 대규모로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휴전선 배치 장거리포에 장착가능한 화학무기를 이미 1천톤이나 생산, 비축하는 등 공격적 化生戰 능력을 강화하고 있어 화학무기 사용시 한국은 즉각 북한의 쏠산업기반을 초토화한다는 전략으로 북한의 화학무기 선제사용을 억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북한은 1925년 제네바 협정과 72년 생화학무기 사용금지 협정에 서명했으나 지난해 발효된 화학무기 협정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어 고도의 강압적인 사찰이 요구된다. *

제4차 유도무기 학술대회 성황리에 열려



지난 9월 9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제4 개발본부 주최로, 유도무기의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발맞추고, 심화되고 있는 선진 외국의 기술보호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첨단 기술정보 교류와 産·學·

研 및 軍 관련종사자들의 유기적인 협동체 제 구축을 목적으로 유도조정 및 체계분야에 대한 제4차 유도무기 학술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황해웅소장은 환영사를 통하여 수시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비하기 위한 자주 국방의 필요성과 고도의 첨단 정밀유도무기 개발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軍 및 産·學·研의 역할분담을 역설하였다.

한편, 학술대회장 입구에 마련된 전시장에서는 4개 업체(금성정밀, 단암산업, 동명중공업, 제일정밀)가 생산, 또는 개발중인 유도조종 및 체계분야의 관련품목을 전시하였으며, 國科研에서도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연구시제품을 전시·소개하여 학술대회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

국가 경제와 안보위해 항공산업 육성해야

항공 기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세미나가 9월 8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주관으로 섬유센터에서 개최되었다.



「항공기산업의 진흥정책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각 분야별 8편의 주제발표로 진행되었다.

특히 李鎭學 공군본부 항공사업단장은 동북아 군사정세를 고려해 볼때 F-15E급 항공기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공중급유기, JSTARS시스템 등이 요구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이번 세미나는 항공기산업이 국가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조망하고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진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 세미나 발표 내용 일부 요약 PP. 32~39